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려정의 70 여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 된 때로부터 73년이 되어온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70년력사와 함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애국의 빛나는 포장을 감회깊이 돌켜보았다.

공화국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갈라진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되었다.

공화국이 내세우고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노선은 하나의 조선로선으로서 철저한 민족자주의 노선, 참다운 애국애족의 노선이며 민족대단결노선, 평화통일노선이다.

공화국은 70여년간 이 하나의 조선로선만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으며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통일노선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

력을 다하였다.

공화국이 1948년 9월 10일 쏘 비양군의 동시철거제안을 비롯하여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적중앙정부수립제안, 폭넓은 협상제안과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북남적십자회담제안,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 단계적인 군축제안, 경제회담, 체육회담, 학생회담제안 등 수많은 통일방안과 북남회담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온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공화국의 창건자인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정세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가장 평명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력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62(1973)년 6월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는데 이어 주제69(1980)년 10월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었다. 제국주의련방세력과 내의분렬주의자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소탕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는 조국통일 5개방침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으로써 민족자체적력량의 단합으로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민족에게 통일위업수행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밝혀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애국애족의 내용과 확고한 통일의지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도 펼쳐주시었다.

지난 시기 공화국은 조선반도에 서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유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에 따른 실천적조치로서 1987년에 10만명의 병력을 축소하고 수많은 군인들을 평화직업선에 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은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은 지난 70여년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 세워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더욱 강화하였다.

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의사와 력에 맞게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

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이며 일관한 정책이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뒤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여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가 바로 공화국의 광복정치이다.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광복정치에 의하여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덕신, 최흥희 등 사상과 정견이 다른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과 동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통일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기울인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시기 범민족대회와 통일통일대추전과 같은 통일행사가 많이 성대히 진행되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비상이 강화되고 민족의 자주통일열기는 크게 고조되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성과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앞당기실수 있는 민족의 의지와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다.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겨레의 통일애국적 지향을 받들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즐기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은 국토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에게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현시기 민족적자주권이 깃들지는 주되는 사회적근원은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적억압이다.

다 아는것처럼 우리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일제 제국주의력량들은 우리 나라의 유리한 지리적위치와 자연부원을 저들의 대륙침략과 치부에 리용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패망이 보기 시작할 첫 시기부터 제국주의력량들은 조선을 강점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국제적인 《후견통치》를 실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었다. 《후견통치》의 간판밑에 전후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장 악랄하게 책동한것이 오래전부터 조선을 지배하려고 획책하였던 미국이었다. 전쟁국면이 급변하는데 따라 조선점령을 위한 준비를 조급히 서두른 미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포한 후 20여일이 지나서 일본군대의 퇴거를 지연시키려는 구실 밑에 피항방을 흘리지 않고 남조선에 강점하였다.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은 강점 첫날부터 38°선을 립시적인 계선이 아니라 남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며 나아가서 조선반도 전체를 가로타고있기 위한 침략의 전초선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조선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의사에 배치되게 될 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되고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결과

우리 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민족분열의 비극이 시작되었으며 조선민족의 자주권이 깃뻛히게 되었다.

미국은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목적밑에 1950년 6월 리승만역도를 사족하여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이로 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거나 북과 남으로 갈라졌으며 우리 민족의 정상적발전이 심히 억척당하게 되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남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고 남조선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메일과 같이 벌어지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치밀한 벌행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애를 차단봉을 내리고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합시적인 전쟁위협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야말로 이 땅의 평화를 해치고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는것이다.

이런 외세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끝장내야 민족이 비로는 통일도 우리 민족의 손으로 이룩할수 있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자주권이 민 주도 없고 통일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될 리고있다.

외국군대가 없고 지배와 굴종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삼천리야말로 우리 겨레가 바라고 꿈꾸어온 진정한 통일세상인것이다.

강력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통일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자주통일결의대회(2015년)

리복순

고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결과

리서철

통일을 불러

민족자본가가 공화국의 대의원으로 (3)

민족적단합을 위한 통일전선노선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모두가 새 민주조선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사상의 진수에 대해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리 리종만선생은 절세위인의 높이신 덕과 고매한 인품, 사리정연한 말씀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하여 아버지수령님께 선생은 평양에 남아 인생말년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껏 일하고싶다는 외란된 청을 올리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선생이 이번에 평양에 남아서 사업할의향을 표시하였는데 앞으로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사업에 적극 참가하기 바람에 앞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책임적인 임무를 맡아주셨으면 한다는 더없는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감격이 젖어있는 리종만선생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외세에 의하여 식민지화된 남조선의 민족산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알려주시고 그가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 사업에도 기여할수 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날 저녁 선생은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후날 그는 수기에 이렇게 썼다.

《가슴속에 조선민족의 더운 피가 맥박치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나서야 한다.

나는 이 길이야말로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길이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이며 또 이 길에 개인의 행복도 영예도 있다는 가장 고귀한 진리를 깨달았다. 나의 어제와 오늘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당시 대회에서 리종만선생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위원 및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민족의 한 성인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광생을 흐리는 일이 없이 살아온 민족자본가에 불과한 그를 애국의 대오에 멋있게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후 아버지수령님께서선 선생을 내각간부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셨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63살이었다.

선생에게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졸업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리종만선생이 외국에 가서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선생은 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인 1954년 정초야 귀국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형언할수 없는 기쁨으로 문안인사조차 변변히 올리지 못하는 선생을 반갑게 맞이 하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의 건강과 생활에 대하여 세세히 물으시고선 선생을 급하게 만나자고 한것은 북구건설과 관련하여 하는일이 있어 오라고 하였다고 하시었다.

한 일없이 늙어만 가는 자기와 나라의 중요한 사업을 도맡아주시는 그의 존안을 우러르며 선생은 그의 믿음에 어떻게 하나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꿰어왔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중요업성 지질탐사관리국의 한 일군을 부르시어 선생을 소개하시면서 오늘부터 리종만선생을 동무로 고편으로 임명한다고, 앞으로 동무들은 리종만선생을 도와서 일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당부 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선생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어 자신께서 믿은것은 리종만선생의 약속이었고 민족적력량이었다고, 동무들은 앞으로도 리종만선생을 계속 잘 모시고 그 선생을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어린 교시를 하시었다.

자신의 운명을 두고 끝까지 살피는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갈만은 선생은 리저나오는 오열을 누르지 못했다.

(진정 이 세상 천하에 아버지수령님처럼 사랑되고 인자하신 인품을 지니신 위인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듯 그의 가슴속에 있는 줄대 일찌기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기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한 한이후유는 커만 갔다.

이렇듯 리종만선생은 어느

덧 70고령에 이르렀지만 나라의 지도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에 스스로 나서 아버지수령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주제44(1955)년 10월 어느 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리종만선생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었다. 그리고 그가 년로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므로 오래동안 휴식도 시켰다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그가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시었다.

진정 리종만선생이 통일애국의 참된 삶을 빛낼수 있는것은 그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각별한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었다.

본시기자

부서에 새 사람이 왔다. 키가 크고 두눈이 남달리 역력실한 청년이었다. 그의 이름은 《박동일》. 저오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찌서 많고많은 이름들 중에...)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니 아닐세라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싸운 전쟁로병이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뒤산에 푸른 참마가 우거지고 마을앞에는 시냇물이 돌돌 흐르는 전라남도의 어느 한 고장이었다고 한다.

고향집을 떠날 때 17살 밖에 안되었던 할아버지는 부모님들에게 미제와 맥국역자들을 쓸어버리고 남가 차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렇게 떠난 걸음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반세기까지 월전던도록 부모님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없었고 태를 묻

고 자라는 고향향을 다시는 밝아볼수 없게 되었다. 한해, 두해 나이가 들어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삼천리강도를 두동강낸 분렬의 장벽은 그대로 남아 있어 마음을 아프게 허비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태어난 손자의 이름에, 갈라진 혈육의 아픔이 무엇인지 체해보지 못한 새 세대의 이름에 민족의 숙원, 겨레의 소원이 담겨져서 태어났을 리가 없다. ...

통일!

어찌 그 한사람만의 소원이야. 북과 남, 해외 8천만은 겨레의 소원이다.

장장 70여년의 기나긴 세월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얼마나 많은 북과 남, 해외의 청년들이 자기들의 심혼과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왔던가. 그 나날들에 울리던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의 웨침소리가 지금

도 메아리쳐서 자라나는 세대 청년들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그 나날들이 이 땅에 울려지던 통일의 노래들은 또 얼마나 절절했던가.

헤어져서 몇해나 우리 헤어져 헤어져 가슴에 사무친 통일의 년된 갈라져서 못살아 서로

부르며 고편에 오가네 북과 남으로 통일된 강산에서 우리 겨레 함께 살리라 우리 겨레 다같이 함께 살리라

정말이지 조선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의 통일성업은 이 땅의 피뎌는 애국청년들의 심정의 고통과 함께 오늘까지 전진하여왔다. 아마도 그래서 세월이 흘러 강산은 변했어도 겨레

의 통일념만은 추호의 변함도 없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넘으로 이어지고있는 것이리라.

깊어지는 생각과 함께 나는 자신이 겨레의 통일념원을 잠시나마 잊고 살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켜보았다. 그럴수록 민족분열의 아픔이 더욱더 사무쳐왔다.

통일동무의 할아버지는 이미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에 새겨준 통일열망은 이 땅에 남아 새 세대들의 통일의지를 더욱 굳세게 하여준다.

통일!

비록 두글자밖에 안되지만 부름이지만 여기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 은 겨레의 열망이 새차게 고조되고있다.

나는 통일의지를 더욱 가다듬으며 《통일!》이라는 레사롭지 않은 부름을 다시한번 조용히 외워보았다.

유려정

장하다, 남녘의 통일선봉대

에서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없는 자유의 시대, 우리 힘으로》라는 가치를 든 민주로총 22기 중앙통일선봉대(통선대)가 울산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미국과의 합동사연승준중단과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웨치며 투쟁기세를 높였다.

그들은 온갖 희유와 고문, 압박에도 자주와 통일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통일애국렬사들의 삶을 이어 통일조국건설에 앞장서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수많은 로동자들과 청년들이 참가한 이번 통일선봉대의 활동은 자주와 통일을 위

한 길에서 언제나 앞장서 달려온 전세대 통일애국렬사들의 모습을 떠올리었다.

그들이 추켜든 통일선봉대의 기발은 그대로 조국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며 통일투쟁의 자랑스러운 선봉대가 되려는 이들의 굳센 의지의 표현이기



본시기자 강류성